



악동양반: 네
고생하셨습니다



Kaming (GM): @부빔



악동양반: @부빔



Kaming (GM): 그림을 기대하는 자의 눈빛



악동양반: ...!?
뭐그리시는줄 아시구...



Kaming (GM): 에르..
<<퍽
@사망



악동양반: 안녕히!!
@탈주



Kaming (GM): ㅋㅋㅋㅋ
그럼 이만!



악동양반: 빠르셔...!



Kaming (GM): sidkd
냐아



호인: 호잇



Kaming (GM): 흠 일단 저 준비되면 다시 호출할게요!



호인: 네
그럼 저는
잠시 밥을 지으려...
혹시 준비가 다 되시더라도 9시쯤 시작할거같습니다!
호출하실때 이야기해드릴게욧
제가 왔습니당



Kaming (GM): @탈썩
저왔습니다



호인: 하이이잉ㅏ
하이이이잇



Kaming (GM): 그러면
시작해볼까요오



호인: 레츠고



Kaming (GM): =====
하사시로 시에서 눈알사건이 일어나기 바로전날 이야기입니다.
서자가 호인의 곁을 떠난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빈자리는 느껴지겠군요.
호인은 뭘하고있을까요?



호인: 한가로운 날 서자가 알려준대로 폰을 꺾꺾 누르고있습니다
전화정도는 이제 혼자서 할수 있어욧!
두둥
다만 지금 다른 앱이 마구 켜져서
곤란해합니다
근데 신기해하기도 하지만 이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네요



타케노우치 쇼우: "곤란해보이는군요. 도와드릴까요?"



Kaming (GM): 그런 호자앞에 처음 보는 남자가



호인: "응?"

"누구?"

"이 은신처는 어떻게 찾아온것인가"

@경계보다는 호기심어린 표정으로 남성을 바라봅니다



타케노우치 쇼우: "아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뿐이에요. 손사래"

"이곳은..저도 잠시 도망치는 중이라 거쳐가는 길일뿐 이곳에 다른분이 계신줄은 저도 몰랐네요"

@으쓱



호인: "도망?"



타케노우치 쇼우: "하하 이곳에 오랫동안 돌아왔는데 그걸 연인에게 들켜버려서"

"아직 얼굴볼 준비가 안됐다고 해야할까..뭐라할까"

@꺾적



호인: "꽤 오래 자리를 비웠나보군"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대체 뭘 했길래 도망을 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타케노우치 쇼우: "하하 고마워요. 그리고 그 기계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끌 수 있어요. 슬슬 그녀도 이곳으로 오는거 같으니 저는 이만.."

@모자를 쓱 하고 벗으며 인사하고

@은신처 밖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Kaming (GM): 잠시후..



와타나베 아키: "하아..하아"



Kaming (GM): 숨을 헐떡이며
호인에게 익숙한 모습의 여인이



호인: @쇼우가 가르쳐준대로 꺾꺾 하고있습니다



Kaming (GM): 당신의 은신처로 찾아옵니다.



호인: "오 아키로구나"

"이런 이른시간에 왜일인것이나"



와타나베 아키: "하아.. 아 호인씨..군요"

"ㅎ..혹시 여기에 작은 백팩을 메고 모자를 쓴 파란 머리의 남자 못보셨나요"



호인: "그 자라면..."

@나간 방향을 가리킵니다

"저쪽으로 사라졌다"
"근데 무슨일이길래..."
"아..."
"그런건가"



와타나베 아키: "그..아무튼!"
"별거아니예요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인: 뭔가 알거같다는 듯이 말하다가 아키에 말에 집중합니다



와타나베 아키: @쌔
호인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호인: "저렇게 빠를줄이야"
"전방에서도 충분히 활약이 가능할거같군"
@흠흠...하면서 턱을 괴고 감상에 젖습니다



Kaming (GM): 그리고 또 잠시후



미츠루기 아야네: "아 호인님 아직 계셨군요"
학교를 마치고 왔는지 교복차림의 모습인 아야네



호인: "아야네로구나 오늘은 손님이 많구나"



미츠루기 아야네: "...?"
@호인의 말에 가웃



호인: "신경쓰지 말거라 별거 없는곳이지만 그리 서있지 말고 이리 앉거라"



미츠루기 아야네: "아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호인의 옆자리에



호인: "어인일로 나를 찾아온것이냐?"



미츠루기 아야네: "아..서자님의 안부를 전해드릴겸..또 서자님이 없어 혹여 쓸쓸하신건 아닌가해서..."



호인: "하하...조금은 마음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으나 서자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막을수는 없지 않느냐"
"나도 서자에게 많이 의지한것도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서 독립한것으로 한것이란다"



이치노스케: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아 서자님은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얼레
너 왜나와



호인: 이치노스케...!!



이치노스케: 끼끼꺄꺄!



미츠루기 아야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아 서자님은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요새 다시 주변이 소란스러워져서 퇴마협회나 특대에서도 대응이 곤란했었는데... 서자님은 큰힘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호인: "그렇구나...서자는 주로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하구나"



미츠루기 아야네: @하지만 말하면서 조금은 어두운 표정



호인: "...왜 그러느냐?"

-  **미츠루기 아야네:** "아..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자님의 활약말씀이시죠?"
"서자님은 누구보다 빨리 초상사건을 발견해내시고 또 정확한 판단으로 최소한의 피해와 빠른해결로 벌써부터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  **호인:** "서자다운 일로구나"
-  **미츠루기 아야네:** "그러면서도 꾸준히 수련하고 계신다고..."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서자님은"
-  **호인:** "좋은 일이지만....너무 무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난 서자를 믿는다"
"그래 서자는 대단한 우리의 동료다"
-  **미츠루기 아야네:** "저희 다른 퇴마사들도 조금 본받았으면 좋겠지만..."
"하아.."
@한숨
-  **호인:** "근심이 있나보구나"
-  **미츠루기 아야네:** "...실은"
@조심스럽게 입을 때네요
"요 몇년간 하사시로 시외의 초상사건이 일어난 일이 거의 없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카미가카리들은 정말 소수예요"
"다들 이 긴 평화속에서 카미가카리로써가아닌 인간으로써의 삶을 느껴버렸지요"
"평화로운 삶 싸움이없고 목숨을 위협받을일 없는"
"하지만... 지금 다시 초상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어요"
-  **미츠루기 아야네:** "평범한..평화로운 삶의 익숙해진 카미가카리들은 그 삶을 놓기..힘들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출에 응하지않거나 조직을 이탈하는 카미가카리들이 속출하고있어요"
"그게..요즘 걱정이라.."
-  **호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현실에서 눈을 돌리려 하는 자들이 많은가보구나"
"근심이 있을만 하군"
-  **미츠루기 아야네:** "이미 평화라는 달콤한독은..저희 대부분을 중독시켰나봐요"
-  **호인:**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야네나 아키와 같은 아이들이 있다"
"아마 너희조차 없었다면 이미 이 하사시로는 검은 탁기에 뒤덮혔을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고달픈것은 알지만 그렇기에 우리라도 평화에 안주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봐야할테지"
-  **미츠루기 아야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기운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  **호인:** "오히려 아야네에게 가중된 짐의 무게를 상기시킨것은 아닌지 염려했지만"
"강한아이로구나"
-  **미츠루기 아야네:** "그리고..또....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  **호인:** "?"
"더 할말이 있는것이 아니었느냐?"
-  **미츠루기 아야네:** @절레절레
"아뇨 이건 저희에 문제라..."

"쓸데없는 걱정끼쳐드릴순없어요"

 **호인:** "...아야네의 사생활에까지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아까도 말했듯 너희들이 짊어진 짐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단다"

"우린 그 짐을 덜어줄수 있지"

"푸념이라도 좋으니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하거라"

"짐에 무게에 눌리는거보단 다른이와 나누는게 낫다"

"물론...아야네의 선택이란다"

 **미츠루기 아야네:** ".....그렇게 말씀해주시는건 정말 고맙지만 아직 확실한것도 아니여서...정말 곤란한일이 생기면 상담할게요"

@썸썸히 웃음짓고는

 **호인:** "알겠다 언제든지 말하거라 아야네의...모두의 짐을 덜어줄수 있는존재는 곁에 많으니..."

 **미츠루기 아야네:** "그럼 저도 이만 돌아가볼게요"

 **호인:** "살펴들어가거라"

"아...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도 되겠느냐?"

 **미츠루기 아야네:** "...?"

 **호인:** "서자의 동료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궁금하구나":

 **미츠루기 아야네:** "후훗...다들 훌륭하신분들이예요"

"딱 여러분들과 같은..?"

 **호인:** @그말에 호인은 미소짓습니다

"고맙구나 아야네"

 **미츠루기 아야네:** @꾸벅

그렇게 아야네도 마지막인사를 하며 호인의 시야에서 멀어집니다.

 **호인:** "그들과 같은 동료라면 문제 없을것이다 서자야"

"분명히 강해질수 있을것이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Kaming (GM):** 구름한점없이 맑은 날이군요.

 **호인:** "평화...라..."

"다른 십이지들은 분명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겠지"

"진정한 평화라는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에 가까워지기위해 노력할수는 있다"

"저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한 다른 생명들의 일상이 깨질일은 없겠지"

"그리고 나는...우리 십이지는 그런 아이들을 돕기위해 존재한다"

"언제든지...어디서든..."

 **호인:** @다시 마루에 앉아 폰을 꺾꺾하기 시작합니다

 **Kaming (GM):** 그럼 잠시후 또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집니다.

 **호인:** @쫄긋

하고는 그쪽을 돌아보겠군요

 **신도 카츠타게:** "....." @두리번 두리번



호인: "너는..."

(오 얼굴 첫 공개!)



신도 카츠타게: 호인을 알아차리고.

"...? 너는 분명"



호인: "그날 아키와 연쟁을 벌였던 남자로구나"

"그래...이 근처에서 서성이는 이유는 무엇이더냐"

"산책하기엔 그리 좋은 길은 아니다만"



신도 카츠타게: "별로 서성거리는것 아니네만...단지 누군가를 찾고있어서 말이지"



호인: "누구를?"



신도 카츠타게: "당신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군"



호인: "그렇겠지 나도 쓸데없이 관여할 생각은 없다"



신도 카츠타게: "적어도 찾던사람이 당신은 아니니까 말이지"

"그리고보니 이곳에 카미가카리였지 당신은 아마?"



호인: "그렇다"



신도 카츠타게: @자신의 턱을 쓰다듬으며

"흐음..."

"그럼 한가지 물어볼게있는데 답해줄 수 있겠나?"



호인: "어떤 물음인지에 대해 달라지겠지 일단 말해보거라"



신도 카츠타게: "그때 본부에서 지부장과 너희들이 이야기하던 '영맥의 실체화' 그것은 발견되었나?"



호인: "그렇다 지금은 보호중이다"



신도 카츠타게: "흐음..하지만 보고서에는 그런내용이 없었는데 역시.. 그렇다면 보호는 어디서?"



호인: "너도 특대의 일원이기에 어느정도 귀뜸을 해주었으나 거기까진 알려줄수 없다"

"알고싶다면 질문의 의도부터 명확하게 하거라"



신도 카츠타게: "....아니 그정도도 이미 충분하게 도움이 되었네"

의미심장한 눈빛을 하고있지만

"그렇지"

"자네는 이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호인: "의무를 짊어진자에겐 독이요 그렇지 않은자에겐 꿀이겠지"

"그러나 그 의무를 짊어진자역시 이 독에 중독돼버렸더군:

"그것도 아주 많은수가"



신도 카츠타게: "그 의무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짊어줄 수 있다면?"



호인: "그렇기에 우리가 존재한다"



신도 카츠타게: @절레절레

"아니 내말은 그 너희도 포함해서 다"



호인: "뭣이..."

@표정이 약간 꿈틀거립니다



신도 카츠타게: "더이상 카미가카리는 없어도 된다는 말이다."



호인: "단편의 힘 없이 사신들을 상대할수 있을것이라 믿느냐"



신도 카츠타게: "그 불가능한걸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 바로 나 신도 카츠타게만이!"

"왜 자네는 힘들게 그 의무를 짊어지고있나?"

"그 짐을 대체할 수 있는길을 내가 제시해주지"



호인: "난 단 한번도 이 일에 의문을 가진적이 없다 적어도 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어디 말해보거라"

"얼마나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있느냐"



신도 카츠타게: "왜! 어째서! 카미가카리로 태어난것만으로 그 지독히도 무거운 짐을 견뎌야만하지?"



호인: "...."



신도 카츠타게: "나는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카미가카리들을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완성했지 카미가카리를 대체 할 수 있는것을"



호인: "대체할수 있다?"



신도 카츠타게: (잠시)



호인: (네넵)



신도 카츠타게: (복귀!)

"그렇다면 어떻게할건가.. 자네는 계속해서 그 짐을 짊어질텐가?"

카츠타게의 눈이 호인의 눈을 바라봅니다.



호인: "짐을 나누는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

@잠시 뚝을 들이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통받기 싫다며 다른이에게 자신의 의무를 모조리 넘겨버리고 가만히 누워 평화에 안주하는것은 가축이나 하는짓이다"

"분명 괴로울것이다 단지 힘을 가지고 태어났을뿐인데 주변에서 의무를 강요하는것은..."

"허나 그 짐을 들어내는것으로 다른이와의 연대를 느끼고 성장한다"

"부딪치기도 하고 깨져보기도 하면서 더욱 더 단단해진다"



신도 카츠타게: "....그게 자네의 대답인가"



호인: "그래"

"힘이란것은 수단일뿐이다"

"그것만 바라본다면 이미 함정에 빠진것이야"

"신살자의 의무에 중점을 두지 않고 조금은 다른쪽에 시선을 두는것도 좋겠지"



신도 카츠타게: "잘들었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웃기를 한번 정리하고

"그럼 나도 찾는사람이 있어서 이만 실례하겠네"



호인: "..."

"짐을 대신 짊어지기보다는 함께 나누는것이 나는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나로써 있을수있으니까"

@떠나는 신도에게 나지막히 말합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 나태해질것이야"

"경계하거라"



신도 카츠타게: "....." 신도는 더이상 호인의 말에 대답하지않고 저 멀리 사라집니다.



호인: "...너의 정의는 분명 옳은것이다"

"그러나 방향이 조금 어긋났군"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너의 마음에도 조금은 별이 들었으면 하는구나"

@조용히 품에서 곰방대를 꺼내 불을 피웁니다

"오랜만에 꺼내는구나"



호인: 은은한 약초향이 호인의 은신처를 채워갑니다



와타나베 아키: "...."@빠곰



호인: @후우 하고 한번 연기를 뱉어내고

"몸에 쓴것은 아니니 걱정말거라"



와타나베 아키: "그런가요.."

@슬금슬금

"확실히.."



호인: "원하는것은 찾았느냐"



와타나베 아키: "하아..결국 놓쳤어요"

"위치추적기까지 붙여놔는데..어떻게.."@ㅂㄷㅂㄷ



호인: "어지간히도 그자에게 원한이 있나보구나"

@작게 웃습니다



와타나베 아키: "그리고 방금온사람 신도씨 였죠...>?"



호인: "그래"

"그런 이름이었구나.."



와타나베 아키: "으음...요새 자주 퇴마협회랑 접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호인씨에게도 무언가...?"



호인: "...아키...신살자의 대체재라는것이 생기면 어떻게 될거같으냐"

"그런게 과연 생길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곰방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지그시 보다가 아키쪽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와타나베 아키: "신을 죽일 수 있는것은 오로지 신의 단편을 지닌자 뿐"

"저희를 대체할 수 있는건..."

"신..밖에 없겠죠"



호인: "신..."

"그 신도라는 자가 어떤자인지는 모른다"

"허나 난 그 자가 비뚤어진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단다"

@연기를 한번 뱉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저 방향성의 차이일뿐"

"그 자에대해 알고있느냐?"



호인: "나야 잠깐 얼굴을 본사이지만 아키는 특대에 속해있지 않느냐"



와타나베 아키: @절레절레

"저사람 존재 자체가 비밀같은 사람이라.."

"하지만 그의 실적은 상부에서 인정받고있다네요.."



호인: "나름대로 묘수를 고안해낸듯 하더구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우린 그저 우리가 할일을 할 뿐이지..."

"확실히 속을 알수없는 자이긴 했다"



와타나베 아키: "그렇네요..."

"뭐 저는 저대로 계속 조사중이고"

"설마 이렇게 든든한 카미가카리들이 있는곳에서 무슨일을 버리진 못할테니까요"



호인: "하하 그래도 너무 긴장을 풀어선 안되겠지"

"지켜야할 아이도 있으니 말이다"



와타나베 아키: "네.."

"하아 오늘은 벌써 늦었으니..더이상 쫓는건 포기해야겠네요"

@시무룩



호인: "....흠..."

"어림 짐작이지만"

"혹시 그 애인이라는것이..."

@뭔가 생각합니다



와타나베 아키: "ㅇ..애애애애애애애..애인이라니요"

@당황

"그렇게 어린 남자랑 저랑 사..ㅅ..사귄리 없잖아요?"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꽃힌다.

@털썩



호인: "본디 애정에 그런것은 구애되지 않는것이다"

@웃으면서 아키의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그 남자도 아키를 위해 노력하는것 같으니 다음에 볼때는 웃으면서 맞이해주거라"

"혹시 아느냐"



와타나베 아키: "....네"



호인: "정말 놀랄일이 있을지"



와타나베 아키: "감사합니다"

"그럼..시간도 늦었으니 저도 그만 일터로 복귀해야겠네요"



호인: "언제나 고생하는구나"



와타나베 아키: "그럼 편히..."@쭈쭈 사라집니다.



Kaming (GM): 많은 사람들이 호인의 거처에 찾아온 날이었네요.

어느세 해는 넘어가고있군요



호인: @서자의 빈자리를 이런식으로 채울줄은 몰랐다고 생각하며 어느새 다 태운 곰방대를 식히고 마루에 앉 습니다

"...서자...너도 의지할수 있는 다른 동료들과 이런식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할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어디 그럼..."

"다시 산책이라도 나가봐야겠군"

@그렇게 호인은 거처를 떠나 언제나처럼 도시순찰을 나갑니다



Kaming (GM): 이후.. 다시 떠내려오는 캣파씨를 만난건 또 다른일...

=====



악동양반: 캣파씨



Kaming (GM): 이정도로 마무리 하지요!



악동양반: 너무 많이 떠내려와...

고생하셨습니다!

새로운 떡밥이 이걸!



Kaming (GM): 'ㅅ'

밍밍



악동양반: 로드러너...

읍읍



Kaming (GM): ㅋㅋㅋ



악동양반: 오늘도

훌륭한 외전이였습니다

슛빠빠이링 로봏으로



Kaming (GM): ㅋㅋㅋㅋㅋ